인생을 담보로 하는 승부

(병적 도박)

한국 사람들은 국제선 공항 로비에서도 담요를 깔고 고스톱을 즐기는 낙천적인(?) 사람들로 유명하다. 더욱이 낙천적이다 못 해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까지도 고스톱을 치다가 발각되어 국민들의 빈축을 산적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화를 보아도 방화(邦畵)나 외화를 막론하고 도박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 그런 영화들은 폭력물이거나 사회의 어두운 곳을 조명하는 영화인 경우가 많다. 방화나 홍콩 영화에서의 도박 장면은 대개 술집 작부들이 상스런 욕지거리를 해대며 소일하는 모습이거나, 칼과 총으로 무장한 킬러들이 지키는 가운데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한 치의 여유도 없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거나 하는 장면이 주류를 이룬다.

결국 진짜 뛰어난 도박꾼 '주윤발'이 에이스 포커를 잡아 일거에 '싹쓸이'를 하면 그 다음 장면은 "사기다!"라며 무차별 총질을 해댄다는 식이다.

인위적인 도박 장면의 설정이 그런 유형으로 흐르는 것은 현실 생활에서도 도박, 또는 도박꾼의 이미지가 '게으르고 나태함, 신실(信實)하지 못 함, 폭력적임' 등의 등 비속(卑俗)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이 모이면 남의 험담을 하고, 셋이 모이면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심풀이 또는 시간 보내기로서의 도박이 만연해 있다.

명절이 다가오고 친지들이 아랫목에 둘러앉으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화투 패가 돌아가고 '점 백' 또는 '점 이 백' 등 '배팅의 규약'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판이 커지지만 않는다면 하루 저녁 꼬박 해도 몇 만 원 잃고 따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그친다면 친선이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크게 나쁠 것 없겠다.

그러나 정신과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그저 심심풀이로' 적은 돈을 걸고 하는 오락성 도박(social gambling)이 아니라, 한 번에 수 백 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그것도 속칭 꽁지 돈을 써 가며 자신의 인생을 걸다시피 하는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의 경우이다.

이미 미국의 정신 과학자들은 전문 도박사들의 인생 역정을 추적하여 그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바 있으니, 그들은 대개 3단계의 과정을 겪으며 마침내는 몰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처음 2, 3년(상승기), 좀 내로라하는 재주꾼은 가는 도박판마다 승승장구, 무서운 다크호스

가 되어 주위를 떨게 한다. 그때 그는 한껏 자만심에 부풀어 술과 여자에 돈을 물처럼 뿌리는 '멋쟁이'행세를 한다.

그 후 3, 4년(쇠퇴기), 뭔가가 풀리지 않으며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히 나은 '신예기'의 무차별 폭격을 받아 상대적으로 자신은 얼간이가 되는 시기가 온다. 이 때 쯤 그의 인기는 서서히 하락하고 아내를 비롯한 주변의 여자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간다.

그 후 4, 5년(파멸기)은 해도 해도 안 되어서 집 팔고 주식도 팔고, 그도 안 되어 문서를 조작하거나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버티어 보다가 결국은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권총 자살을 하는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파멸의 역정이 길어야 15년 남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습적으로 도박판에 끼어 수 천 만원의 돈을 날린 30대 주부가 한사람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권태와 짜증으로 매사를 건성건성 해대며 자식이 학교를 가든 남편이 직장을 나가든, 밥을 굶든 잠을 자든 통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식들 밥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잠자리까지도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화투 패를 붙잡고 있을 때'만은 모든 짜증이 해소되고 다행감(多幸感)을 느껴졌다.

그녀는 얼마 전 남편이 은행 빚을 내어 도박판에서 진 빚을 모두 갚아 준 뒤 채 한 달이 안 되어 또다시 천 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왔는데, 선택의 길은 남편과 이혼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탕주의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지 못 하는 바람에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자식들의 인생까지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이번에는 딸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망상 수준의 판단력 부재) - 긴장과 스릴의 고조(오르가즘 직전의 긴장감) - "역시 안 되네!"(사정 후의 허탈감) - 판돈 마련을 위한 비열한 짓(체력 보강)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감.

병적 도박은 이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나락(奈落)으로 떨어지는 급행열차이다.